

성악 중등부/초등부 1·2·5·6학년 이경은 광주음협회장

변성기 학생들 곡 선택 세심한 배려를

이번 호남 예술제 성악부문은 귀하고 뛰어난 재능을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 해 동안 저마다 실력을 갈고 닦은 미래 성악 인재들은, 경연곡에 맞는 감성을 담아 노래했다.

초등부에 비해 중등부는 변성기 참가자들이 많이 있어서 무리한 경연곡 선택으로 인해 성대를 다치지 않게 지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곡을 다루려다 무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에게 맞는 곡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최고의 조건에서 다양한 콘텐트를 활용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참가자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현악 박슬기 송실대 교수

수준에 맞는 곡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길

어느덧 69회를 맞은 '호남 예술제'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보여준 음악적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기본적으로 음악은 좋은 소리, 정확한 음정, 박자, 그리고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무작정 어려운 곡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이번 콩쿠르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키워주며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피아노 초등부 3·4학년 서운진 광주교대 교수

음악적 흐름에 관심 갖고 표현해야

먼저 2024년 호남예술제 참여를 위해 열심히 기량을 닦고 멋진 무대를 보여준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하이든과 베토벤 소나타는 일정한 템포와 정확한 리듬, 명확한 소리, 그리고 적절한 페달의 사용이 다른 고전 소나타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세 지점 중 하이든 소나타가 가장 많이 연주됐는데, 고전 소나타로서의 어려운 부분 외에도 익살스러운 캐릭터와 3도의 정확한 소리 등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 연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였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은 음악적인 분석과 구조의 이해, 그리고 그 표현이 중요하다.

국악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K-국악'의 미래 명인들 기량 빼어나

참가자들은 'K-국악'의 미래가 될 초등 개인부에서 특히 빼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올해 경연에는 다양한 국악계 꿈나무들이 자신의 실력을 선보였지만, 내년 70회에는 국악부문에서 더 많은 개인·단체의 지원자가 참여하면 한다.

발레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기본기·레벨에 적합한 작품 선택해야

올해도 '호남예술제'는 남도지역 미래 예술가들에게 축제의 장이자 광주의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연 중에는 예술 꿈나무들과 선생님들의 열정, 부모님들의 격려가 어우러진 감동의 순간들이 여러 번 연출됐다.

발레는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하다.

성악 고등부/초등부 3·4학년 김영지 초당대 교수

곡 느낌에 맞춰 리듬 타는 습관 중요

성악은 어떤 악기보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올해도 초등부 3,4학년 경연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난한 모습이었다.

중등부는 예년에 비해 남학생 수가 늘어 반갑고 다정스러웠다.

무엇보다도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체적인 곡의 느낌에 맞춰 리듬을 타는 습관이 중요하다.

피아노 중등부/초등부 1·2학년 박규연 군산대 교수

음악적 재능·열정 빛난 '아름다운 봄날'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이 빛났던, 아름다운 5월 봄날에 열린 피아노 축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5월 봄날에 69년 전통의 전국 최대규모 예술 잔치 '호남예술제'가 열렸다.

중학생 참가자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연주 기량과 감정 표현력, 음악적 이해도를 보였다.

경연대회 특성상 부담을 느끼고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을 것 같다.

중주/합주 주민혁 광주시향 수석

초등부 표현력·중등부 테크닉 '홀륭'

먼저 호남예술제에 참가해 예술 기량을 선보인 모든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한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그동안 갖고 있던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합주부도 지도 선생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열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무대를 펼쳤다고 본다.

한국무용 박선옥 목포대 책임연구원

연령대에 맞는 주제·안무 구성해야

이번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부문은 '초등' 경연 및 '창작' 분야가 주를 이뤘다.



해당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의 작품은 자칫 기교 중심으로 흘러 가거나, 안무와 괴리된 표현을 할 염려가 있다.

'호남예술제'는 내일의 비전을 복돋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예술 꽃망울들의 놀이터'다.

미술 조근호 서양화가

창의력 높은 수작 많이 나와 미래 기대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9회를 맞았다.



올해는 그간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모 형식으로 치러 왔던 대회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현장에서 대회를 치룬 터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참가자 수는 총 767명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작품 수준은 예년 에 뒤지지 않는 수작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는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몇몇 작품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완성된 흔적들이 보여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관악 이철용 연세대 교수

화려한 기교보다 기본기 충실하게

제69회 호남예술제에 참가한 모든 학생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무대에 심사위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예술제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성장한 미래 음악가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발견하는 자리였다.

첨단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음악의 본질'은 따뜻한 음악과 자아의 표현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어려운 지정곡을 모두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

피아노 고등부/초등부 5·6학년 조성경 전남과학대 교수

피아노에 대한 열정 보여주는 대회 고무적

피아노 부문 고등부는 다소 어려운 지정곡이 선풍됐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들 모두에게 '기본에 충실한 연주'를 권하고 싶다.

피아노 초등부 5, 6학년의 지정곡 역시 난이도가 있어 편차가 있었으나,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모습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향후 잠재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

중창/합창 임선아 한국음협광주지회 부회장

아름다운 소리 더 크게 담은 하모니 기대

아이들의 맑고 때묻지 않은 목소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 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느낀 점은 아이들이 원활하게 노래를 소화하기에는 지정 곡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아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더 크게 담은 하모니를 기대해 본다.

현대·실용무용 여순심 광주여대 교수

무대는 뜨거웠고 춤사위는 아름다웠다

제69회 '호남예술제 현대무용·실용무용부문 경연'이 4월 25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창작무용 파트는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타 지역 무용경연과 날짜가 겹친 탓일까.

작문 박성천 소설가·광주일보 문화부장

글 쓴 후 퇴고 과정 거쳐 완성도 높였으면

올해 작문 분야는 지난해와 비슷한 응모 현황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작품은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참신하게 표현한 글이 많았다.

글은 생각과 언어, 시각, 적합한 표현이 어우러져야 빛을 발한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참신한 생각과 언어로 세상을 밝히는 좋은 글을 썼으면 한다.